토트넘, FA컵 64강 미들즈브러와 아쉬운 1-1

침묵한 손흥민, 답답한 무리뉴

3경기 출장정지 징계 해제로 복귀
부상 당한 케인 대신 최전방 출전
기대했던 화끈한 복귀골은 무위로
무리뉴 감독, 케인 공백 '스트레스'

손흥민

손흥민(28·토트넘)이 돌아왔지만 기대했던 한방은 없었다.

토트넘은 6일(한국시간) 영국 미들즈브러 리버사이드 스타디움에서 끝난 2019∼2020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64강 원정경기에서 미들즈브러(2부 리그)와 1-1로 비겼다. 양 팀은 토트넘 홈에서 재 경기를 갖는다.

이날 경기가 주목 받은 이유는 손흥민의 복귀전이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첼시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18라운드에서 보복성 행위로 퇴장당한 뒤 3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손흥민이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손흥민은 재활 중인 공격수 해리 케인을 대신해 루카스 모우라와 함께 최전방을 책임졌다. 후반 5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한 토트넘은 후반 16분 모우라의 헤딩골로 균형을 맞췄다. 이후 토트넘은 승부를 결정짓기 위해 파상공세를 펼쳤지만 추가득점에는 실패했다. 손흥민은 상대의 강력한 밀집 수비는 물론이고 전방에서 자신의 장점을 살린 플레이를 펼치지 못했다.

케인의 공백이 커보였다. 2일 사우샘프턴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케인은 장기간 결장이 불가피하다. 손흥민이 복귀하는 시점에 케인이 빠져 팀은 제대로 된 전력을 가동할 수 없게 됐다.

조세 무리뉴 감독도 많은 찬스를 살리지 못한 점을 염두에 둔 듯 스트라이커 부재를 아쉬워했다. 그는 경기 후 "케인 없이 경기를 해야 하는 건 새로운 도전"이라면서 "손흥민과 모우라 투 톱이 많이 움직이게끔 하려고 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다"면서 "그 누구라도 손흥민과 모우라를 케인처럼 '9번 스트라이커'로 바꿀 순 없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무리뉴 감독은 현실을 인정했다. 그는 "케인이 없는 것은 큰 손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가능한 자원으로 경기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토트넘 조세 무리뉴 감독이 6일(한국시간) 영국 미들즈브러 리버사이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미들즈브러와 64강 원정경기 도중 게임이 풀리지 않자 답답하다는 듯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다. 손흥민의 복귀전이었던 이날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미들즈브러(영국) | AP 뉴시스

축구 콤팩트뉴스

대구FC, U-20 캡틴 황태현 영입

황태현

대구FC는 6일 전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 '캡틴' 황태현(21)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스포츠동아 2019년 12월 20일자 6면 단독보도). K리그2 안산 그리너스에 몸담았던 황태현은 지난해 여름 폴란드에서 개최된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 출격해 '정정용호'의 준우승 신화를 함께 했다. 대구는 2020시즌을 대비해 측면 수비 보강에 열을 올렸고, 젊은 패기와 실력을 두루 갖춘 황태현이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대구는 황태현을 얻는 대신 김경준을 보내는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동계전지훈련이 진행될 중국 쿤밍으로 7일 출국할 황태현은 "대구에 내 이름을 각인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전했다.

수원 수비수 구자룡 고향팀 전북 이적

구자룡

K리그1 챔피언 전북 현대가 수원 삼성의 중앙수비수 구자룡(28)을 영입했다고 6일 발표했다. 빠른 스피드와 제공권이 강점인 구자룡은 전북의 뒷문을 더욱 단단하게 할 자원이다. 2011년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수원에 입단한 구자룡은 2015년부터 꾸준히 주전으로 뛰며 지난해까지 5시즌 동안 138경기(2골)에 출격했다. 전북의 연고지인 전주 출신으로 전북 12세 이하(U-12) 유소년팀을 거친 구자룡은 "고향 팀이라 더욱 잘하고 싶다. 설렘과 기대가 크다. 최고의 동료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싶다"는 입단 소감을 전했다.

김두현 합류한 수원, 코치진 구성 완료

김두현 코치

K리그1 수원 삼성이 6일 신임 코칭스태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원은 기존 주승진 코치를 수석코치로 승격시키고, 또 다른 1군 코치로 김두현 코치를 합류시켰다. 피지컬 코치로는 중국 슈퍼리그 옌볜 푸더에서 활동한 권보성 코치가 맡고, 골키퍼는 기존 김봉수 코치가 담당한다. 수원 선수단은 7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출국해 동계전지훈련을 시작한다.

전훈 떠나는 수원 이임생 감독 시즌 구상

수원 이임생 감독

1 목표는 상위 스플릿
2 챔스리그 16강 이상
3 전술 변화 유연하게

수원 삼성은 7일 전지훈련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로 떠난다. 지난해 K리그1에서 최종 8위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긴 수원은 FA컵에서 우승해 올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나선다. 부임 2년차를 맞이한 이임생 감독(49)은 본격적인 새 시즌 준비에 앞서 6일 기자들과 만나 새해 구상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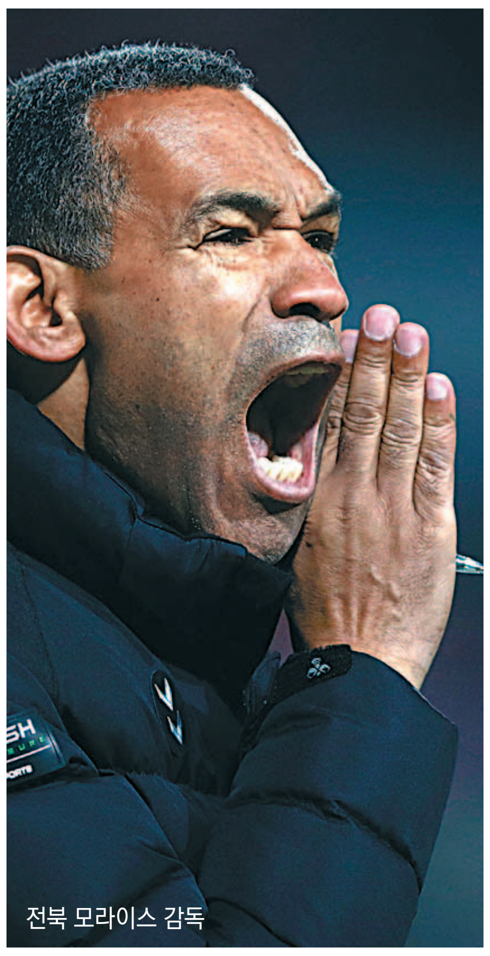
이 감독은 "AFC 챔피언스리그는 나라를 대표해 참가하는 대회다. 최소 16강에 진출하도록 하겠다. K리그1에서는 지난해 실패한 상위 스플릿 진출을 이뤄내고 싶다"고 지향점을 공개했다. 이어 "전북, 울산 등과 우승 경쟁을 하면 더 없이 좋겠다. 그러나 정한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며 장기적으로 탄탄한 팀을 만드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은 1차적으로 외국인선수 구성을 모두 마쳤고, 국내 선수도 어느 정도 보강을 했다. 하지만 '빅 네임'은 없었다. "선수 구성에 100% 만족하는 감독은 없을 것 같다"고 운을 뗀 이 감독은 "현실은 받아들여야 한다. 구단이 처한 상황에 맞는 팀 운영이 필요하다"라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라는 생각보단 긍정적인 마인드로 모든 걸 이겨내려 노력중이다. 갖춰진 자원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 감독은 지난해 K리그1 득점왕을 차지한 공격수 아담 타가트(27·호주)의 이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공개했다. 예산이 넉넉지 않은 구단의 현실을 감안하면 무작정 타가트의 이적을 반대할 입장이 아니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이 감독은 전지훈련에서 지난해 실패했던 강한 전방 압박과 스리백, 포백을 혼용할 수 있는 전술의 유연성을 갖추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최전방 공격은 투 톱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도 해볼 참이다. 이 감독은 "지난 시즌을 마친 뒤 스페인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헤타페의 경기와 훈련을 지켜봤다. 그라운드에 나선 10명이 함께 움직이며 공수 밸런스를 유지해내더라. 기술도 좋지만 피지컬과 정신력을 강조하는 부분도 인상적이었다"며 "우리도 감독, 코치, 선수 모두가 '원 팀'을 이룰 수 있도록 잘 만들어보겠다. 올해는 팬들이 기뻐하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원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K리그 챔프 전북, 2020 최대 목표는 '아시아의 왕'


전북 모라이스 감독

K리그 넘어 3번째 ACL 제패 도전
FIFA 클럽월드컵 티켓도 걸려있어
김보경·쿠니모토 합류땐 중원 탄탄

K리그1 챔피언 전북 현대가 2020년 새해를 힘차게 열어젖혔다.

조세 모라이스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전북 선수단은 6일 전북 완주군 클럽하우스에서 새 시즌을 향한 담금질에 돌입했다. 지난 시즌 울산 현대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K리그1 3연패와 함께 통산 7번째 정상(2009·2011·2014·2015·2017·2018·2019년)을 밟은 전북의 최대 목표는 언제나 그랬듯이 아시아 제패다.

2006·2016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를 평정한 전북이지만 2020시즌은 더욱 특별하다. 클럽을 넘어 K리그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그림이다. ACL에는 확대·개편된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티켓이 걸려있다. 2021년 중국에서 개최될 클럽월드컵의 아시아 출전권은 3.5장으로 결승 진출 두 팀이 자동 진출한다.

최근 K리그는 큰 위기를 맞이했다. 당장 내년부터 K리그에 배정된 ACL 티켓이 2+2장으로 줄었다. 올해까지는 3+1장이지만 아시아 무대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며 경쟁국들과 자리를 바꿔야 했다. 아시아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강호인 만큼 부담은 더욱 크다.

이에 전북은 겨울이적시장을 알차게 보냈다. 신형민(베이징 런허), 임선영(성남FC), 고무열(강원FC) 등 일부 이탈도 있었으나 지난해 K리그1 최우수선수(MVP) 김보경을 다시 영입했고, 아시아쿼터로 쿠니모토(일본)를 K리그2 경남FC에서 데려왔다. 수원 삼성 출신 구자룡과 무양룡(태국)에 몸담은 오반석과도 사인하며 뒷문 보강에도 열을 올렸다.

전북은 내부 단속에도 적극 나섰다. 베테랑 골게터 이동국과 오른쪽 풀백 이용과 계약연장을 했고, 중국행 루머가 나왔던 '다용도 미드필더' 손준호와 중앙수비수 김민혁과의 동행도 확정했다.

한편, "최고의 시즌을 만들자"는 모라이스 감독의 짧고 굵은 메시지로 시작한 첫 번째 풀 트레이닝에는 25명이 참여했다. 김보경, 손준호, 김진수 등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끝난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에 출전한 국가대표들은 컨디션 회복을 위해 좀더 긴 휴식을 부여받았다. 이들은 9일부터 스페인 마르베야에서 진행될 동계전지훈련부터 동참한다.

완주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